

水路燕行錄과 水路燕行圖

임기중*

차 례

1. 燕行錄의 傳承 現況
 2. 水路燕行錄의 傳承 現況
 3. 陸路和 水路의 路程
 4. 380년 전 登州 文錄과 畫錄
 5. 21세기 登州의 역할
-

1. 燕行錄의 傳承 現況

燕行錄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文獻群 가운데서 독특한 의미와 광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記錄 遺産이다. 年行錄은 朝鮮의 使臣들이 元明清 王朝 때 중국에 나가서 그들이 수행한 일과 보고들은 것과 직접 체험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놓은 기록물이다. 원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을 賓王錄이라 이름 붙였으며,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리고 청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런 까닭으로 조천록과 年行錄이란 용어를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명·청 왕조를 辨別하는 用語로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명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에도 연행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3-4종이나 있으며, 청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에도 조천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원·명·청 왕조 때 중국을 다녀와서 쓴 일정한 체재를 갖춘 사기록을 연행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연행록이란 용어는 한국인이 원·명·청 왕조 때 중국을 다녀와서 써놓은 일정한 체재를 갖춘 일반 기행록을 포함한 使行錄을 일컫는다.

燕行錄은 고려부터 조선왕조까지 7백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외교적인 통로로 중국에 나가서 보고들은 견문과 선진문물에 대한 체험들을 자유롭고 창의성 있게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동아시아, 동아시아와 세계 외교의 力學 關係, 공식 비공식의 국제무역과 경제적 상황, 문화 교류와 첨단 학술 교류 등 아주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연행록은 북경까지의 사행 노정, 제반 사행 의식과 절차, 중국의 역사와 전통과 제도,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북경의 서적 정보와 학술 활동, 중국의 전통 연희와 서양의 최신 연희, 북경의 서양 문물과 서양 서적,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 그리고 민정, 풍속, 언어, 지리 등을 기본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편, 연행록에는 중국 쪽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기록들과 중국 쪽에서 소홀하게 기록한 것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들도 적잖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행록은 동아시아 어느 분야의 연구에서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실로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1970년부터 연행록의 발굴 조사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 일차적인 결과물을 2002년에 『燕行錄全集』 1-100卷(東國大 出版部)으로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에는 연행록 398건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에 『燕行錄全集 日本所藏編』 1-3卷(林基中/夫馬進,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을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33건의 연행록을 수록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60건의 연행록을 수집하여 『燕行錄解題-1』(유성문화사)로 출간하였으며,

2004년에는 『燕行錄解題-2』로 70건의 연행록을 수집하여 원고를 마무리 중에 있다. 이렇게 하여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정리를 마무리한 연행록은 모두 561건이다. 그밖에 존재의 확인과 소장처는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입수를 하지 못한 자료가 6건이 있으며 수집된 채 아직 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연행록 3종이 더 있다. 이를 所藏國 별로 본다면 日本이 33건, 美國이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韓國 所藏本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굴 조사를 더 진행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연행록의 전승 총규모는 570건인 셈이다.

2. 水路燕行錄의 傳承 現況

고려부터 조선왕조까지 7백여 년(13-19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외교적인 통로로 중국을 왕래한 내용을 기록한 연행록 570건 가운데서 航海水路燕行錄은 모두 27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승되고 있다. 다음은 그것을 연행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본 것이다.

1617 駕海朝天錄	安 璪(1564-?)	光海9	天命2	丁巳(2)
1622 秋灘朝天日錄	吳允謙(1559-1636)	光海14	天 啓 2	
壬戌(1)				
1623 燕行錄(一云 朝天錄)	趙 澂(1568-1631)	仁祖1	天啓3	癸亥(全)
1623 癸亥水路朝天錄(한글본)	趙 澂(1568-1631)	仁祖1	天啓3	癸亥(全)
1623 朝天錄	李民宥(1570-1629)	仁祖1	天啓3	癸亥(全)
1624 花浦朝天航海錄	洪翼漢(1586-1637)	仁祖2	天啓4	甲子(全)
1624 朝天錄(航海日記)	閔上舍(?-?)		仁祖2	天 啓 4
甲子(2)				
1624 묘단복(朝天錄)權啓/金德承?	未 詳(?-?)		仁祖2	天 啓 4
甲子(全)				

1624	독천니공행적록(竹泉李公行蹟錄)	未 詳(?-?)	仁祖2	天 啓 4	甲子(2)
1624	白沙公航海路程日記	尹 暄(1573-1627)	仁祖2	天啓4	甲子(全)
1625	天槎大觀	金德承(1595-1658)	仁祖3	天啓5	乙丑(2)
1625	沙西航海朝天日錄(草稿本)	全 湜(1563-1642)	仁祖3	天啓5	乙丑(全)
1625	槎行錄(文集本)	全 湜(1563-1342)	仁祖3	天啓5	乙丑(全)
1626	路程記	南以雄(1575-1648)	仁祖4	天啓6	丙寅(1)
1626	朝天錄	金尙憲(1570-1652)	仁祖4	天啓6	丙寅(全)
1626	朝天錄	金地粹(1585-1636)	仁祖4	天啓6	丙寅(全)
1628	戊辰朝天時間見事件啓	申悅道(1589-1659)	仁祖6	崇禎1	戊辰(2)
1629	朝天日記	未 詳(?-?)	仁祖7	崇 禎 2	己巳(全)
1629	雪汀先生朝天日記	李 屹(1568-1630)	仁祖7	崇禎2	己巳(全)
1630	東槎錄	崔有海(1587-1641)	仁祖8	崇禎3	庚午(全)
1631	朝天錄	高用厚(1577-?)	仁祖9	崇禎4	辛未(全)
1632	朝天後錄	李安訥(1571-1637)	仁祖10	崇禎5	壬申(全)
1632	朝天日記(寫本)	洪 鎬(1586-1646)	仁祖10	崇禎5	壬申(全)
1632	朝天日記(印本)	洪 鎬(1586-1646)	仁祖10	崇禎5	壬申(全)
1636	崇禎丙子朝天錄	李晚榮(1604-1672)	仁祖14	崇禎9	丙子(1)
1636	潛谷朝天日記	金 堉(1580-1658)	仁祖14	崇 禎 9	丙子(全)
1636	朝京日錄	金 堉(1580-1658)	仁祖14	崇禎9	丙子(全)

(총 27종. 앞의 全集/1차/2차 표시)

이처럼 水路燕行錄은 明과 淸의 交替期에 陸路燕行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1617년부터 1636년까지 대략 20여 년 동안에 작성되었다. 당시까지의 航海 狀況으로 類推하여 볼 때 水路는 陸路보다 훨씬 위험도가 높았을 것이다. 航海 技術이나 船舶 事情 등이 모두 열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燕行使들은 주로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나갔으며, 수로를 통해서 중국에 나간 것은 육로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였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때

문에 육로가 막히자 백제나 신라가 뱃길을 통해서 당나라에 오갔다. 고려 시대에도 거란이나 금나라 때문에 육로가 막히자 고려가 뱃길을 통해 송나라에 오갔다. 조선조에는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해지다가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다. 그는 1621년에 요동을 쳐서 심양을 점령하고, 요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조선도 水路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뱃길은 생사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코스였다. 조선왕조 1617년 水路燕行에서 살아 돌아온 安璫(1564-?)은 귀국 후에도 계속 死境 體驗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신이 그런 죽음을 경험한 이유가 文官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후손들에게 문관 벼슬을 하지 말라고 遺言을 남길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宣沙浦 인근의 안주 백성들은 燕行使가 떠날 때마다 수행원으로 차출을 당했으므로, 언제 끌려갈지 몰라서 항상 불안에 싸여 있었다¹⁾고 한다. 그리고 1620년에는 광해군이 명나라 신종을 조문하려고 보낸, 陳慰使 박이서 進香使 유간 書狀官 정응두 일행은 육로를 통해 명나라에 갔다가 요동반도의 통행이 막히자 1621년 뱃길로 歸國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모두 죽고 말았다. 이처럼 당시의 水路는 아주 위험한 燕行路였다. 李屹(1568-1630)이 水路後赴京使를 다음과 같이 特記한 까닭도 그러한 연유 때문일 것이다.

水路後赴京使

辛酉 崔應虛 安璫 謝恩使 權盡己 柳汝恒 陳慰使

壬戌 吳允謙 邊滄 柳應元 天啓登極 李顯英 冬至使

癸亥 李慶全 尹暄 李民成 請封 趙澱 任賚之 冬至使

甲子 權啓 金德承 冬至使

乙丑 全湜 李沫 冬至使 朴鼎賢 鄭雲湖 南宮徹 冊封謝恩

丙寅 金尙憲 南以雄 金地粹 冬至使 聖節使 謝恩陳賀

丁卯 權帖 鄭世矩 虜情奏聞 邊應壁 尹昌立 冬至使

戊辰 韓汝漫 閔聖徵 姜善餘 賀登極崇禎皇帝 洪滂 進香於天啓 陳慰於崇禎 宋克

訥 申闕道 冬至使

1) 安璫, 『駕海朝天錄』, 1617 參照.

己巳 李屹 進賀 皇孫誕生 卞誣媾倭款虜 尹安國 冬至使²⁾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발굴 조사 작업에서 李屹(1568-1630)이 기록한 이 水路後赴京使들의 수로연행록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의 丁卯와 戊辰 수로연행사들의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의 수로에 관한 불안 의식은 수로연행록의 전승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3. 陸路와 水路의 路程

燕行圖와 燕行路程記는 단행본 별책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 두루마리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 지도로 전승되고 있는 것, 畫本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 연행록 속에 끼어 전승되고 있는 것 등 그 전승 양상이 아주 다양하다. 양적으로는 필자가 수집하여 놓은 것만도 상당한 분량이 되며, 아직 수집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수집본 정리의 출판과 함께 별도의 저서로 출판해 보려고 하지만, 이 글이 연행록의 전승과 노정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중 한 부분인 燕行圖의 개략적인 것만을 먼저 거론하여 보려고 한다.

燕行圖는 航海朝天圖(1624년, 仁祖 2, 天啓 4, 甲子)나 陸路燕行圖(1760년, 英祖 36, 乾隆 25, 庚辰) 등과 같이 연행 노정의 전모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있으며, 山海關圖(미상), 瀋陽館圖(미상), 熱河圖(미상), 宮城圖(여러 종), 皇都圖(여러 종) 등과 같이 어떤 한 단면만을 부각시켜 그려 놓은 것도 있다. 그리고, 조선에 다녀간 중국의 사신 일행들이 그린

2)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 13卷, 183쪽, 『雪汀先生朝天日記』, 李屹(1568-1630), 仁祖7 崇禎2 己巳 1629 參照.

위와 유사한 유형의 것도 전승되고 있다. 가령, 청나라 何克敦의 奉使圖와 같은 것이 그러한 유형의 보기이다. 이 가운데서 航海朝天圖만을 잠깐 거론하여 보기로 한다. 이 연행도는 국립도서관에 1건, 국립박물관에 2건, 군사박물관에 1건이 있다. 그러나, 그 연행도가 최근까지도 어느 때 무슨 그림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며, 그에 관한 연구나 구체적인 거론을 한 이도 없어서 그 중요성이나 그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필자가 몇 년 전에 연행록을 정리하다가 蔡濟恭(1720-1799)의 『攀巖集』~卷56에 들어 있는 「題李竹泉航海勝覽圖後」와 吳載純(1727-1792)의 『醇庵集』~卷6에 들어 있는 「航海朝天圖跋」³⁾을 읽게 되었다. 이 두 건의 발문을 살펴보았더니, 위 航海朝天圖는 1624년(仁祖 2, 天啓 4, 甲子)에 명나라 奏請使行 李德洞, 吳翮, 洪翼漢, 蔡濟恭을 따라 갔던 畫員이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燕行路程記는 많은 陸路路程記와 몇 편의 海路路程記가 전승되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조선왕조(15-19세기)의 燕行路는 陸路 2코스와 海路 2코스로 모두 4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燕行路였다. 陸路 2코스는 遼東에서 十里堡를 거쳐 廣寧에서 燕京으로 가는 것이 1코스고, 遼東에서 鞍山을 거쳐 廣寧에서 燕京으로 가는 것이 다른 1코스로 되어 있다. 海路 2코스는 平島에서 廟島를 거쳐 登州에서 燕京으로 가는 것이 1코스이고, 平島에서 覺華島를 거쳐 曹庄驛에서 燕京으로 가는 것이 다른 1코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登州에서 燕京에 가는 코스는 陸路로 가는 코스와 運河로 가는 2코스가 있었다. 앞의 水路燕行錄 27종에 나타나는 코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현전하는 수로연행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617년 安璫의 駕海朝天錄인데, 이 연행록은 登州 코스를 택하였다. 그리고, 洪鎬(1586-1646)와 金堉(1580-1658) 일행은 覺華島 쪽의 코스를 택하였다. 그러나, 수로연행록을 처음으로 쓴 안경을 비롯하여 그 밖의 연행사들은 모두 묘도를 거쳐서 등주로 가는 코스를 택하고 있다. 다만 등주코스를 택한 연행사로서 1622

3) 林基中, 『燕行錄全集』, 40-451쪽, 41-353쪽 參照.

년 『秋灘朝天日錄』을 쓴 吳允謙(1559-1636) 일행은 등주에서 德州로 가서 運河를 이용해서 通州를 거쳐서 연경으로 갔다. 따라서 당시 水路燕行錄의 코스를 代表하는 것은 登州 코스였다. 그러나 당시 이 등주 코스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駕海朝天錄』에 잘 나타나 있다. 안경 일행은 5월 17일 평안도 안주에서 명나라 사신 유홍운을 만나 인사하고, 20일에 청천강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였다. 바다를 건너 6월 20일에 등주에 내렸으므로, 등주까지 꼭 한 달이 걸린 셈이다. 도중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였는데, 이때 배 9척이 침몰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은사 최응허가 6월 25일 광해군께 올린 장계에도 밝혀져 있다. 그는 장계에서 “중국 사신이 여순 항구에 도착하는데 밤중에 사나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 劉天使가 탄 배와 신이 타고 있던 배, 진위사가 타고 있던 배, 두 중국 사신의 짐을 실은 배 등 모두 9척의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유천사는 겨우 몸만 빠져 나왔고, 한인들 가운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신도 겨우 헤엄쳐 나와 표문·주문·공문을 물 속에서 건져냈는데, 토산물의 태반은 물에 떠내려가 유실했습니다” 라고 알린다. 이 사건은 안경이 6월 4일에 쓴 일기에도 처절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배에서 떨어진 자들과 떠다니는 시체가 서로 섞여, 바다에 가득했다. 뱃전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죽음을 무릅쓰고 다투어 기어올랐다. 급박하고 절박한 와중에 간신히 8-9척에 실린 방물을 옮겼다. 해가 저물며 어둑해지자, 이번에는 후금 오랑캐가 떼를 지어 포를 쏘고 화살을 쏘았다. 미처 멀리 달아나지도 못했는데 큰비가 또 내리고 천둥과 바람까지 바다를 뒤집어 놓아,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속수무책으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고 썼다. 안경은 이러한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고향의 어머니를 생각하자 눈물이 흘렀다고 하였다. 안경 일행은 명나라에서 조선에 왔던 사신 일행과 조선의 진위사, 사은사 일행과 더불어서 많은 인원이 함께 떠났었다. 당시 요동반도는 후금의 군사들에 의해서 연행루트가 차단되었다. 따라서 뱃길을 통해서 명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다. 뱃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당시로서는 명나라의 승인을 얻어낼 시간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명나라 사신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떠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비변사에서 뱃길 개척 문제를 별도로 건의하기로 하였다. 그 때 진향사와 서장관은 여러 사람들이 추천되었는데, 추천되는 사람마다 뇌물을 쓰거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사퇴하는 상황이었다. 지난번에 갔던 진위사와 진향사, 서장관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탔다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된 뱃길이 아니라 갑작스레 떠난 뱃길이기 때문에, 배도 튼튼하지 못하고 뱃길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뱃사공들도 서툴러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두 차례나 계속 몰살을 당하는 참상을 겪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로연행의 후유증은 한 동안 계속되었다.

洪翼漢(1586-1637) 일행의 水路路程은 다음과 같았는데, 이 路程이 이후에도 普遍化되는 데는 앞에서 언급한 航海朝天圖가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自本浦距椴島八十里 自椴島西距車牛島百里餘 自車牛島西距鹿島五百里 自鹿島西南距石城島五百里 自石城島南距長山島三百里 自長山島西距廣鹿島二百里 自廣鹿島西距三山島三百里 自三山島西距平島二百里 自平島西北距旅順口二百里 西南距皇城島六百里 自旅順口西南距皇城島四百里餘 自皇城島西南距鼉磯島三百里 自鼉磯島西南距廟島二百里 自廟島南距登州八十里 自登州距帝都一千八百里 不由濟南則一千七百里⁴⁾

本浦(宣沙浦)에서 80리—椴島, 椴島에서 서쪽으로 100여리—車牛島, 車牛島(청대 지도에 없음)에서 서쪽으로 5백리—鹿島, 鹿島에서 서남쪽으로 500리—石城島, 石城島에서 남쪽으로 3백리—長山島, 長山島에서 서쪽으로 2백리—廣鹿島, 廣鹿島에서 서쪽으로 3백리—三山島, 三山島에서 서쪽으로 2백리—平島, 平島에서 서북쪽으로 2백리—旅順口, 旅順口(平島에서 皇城島까지는 6백리)에서 서남쪽으로 4백여리—皇城島, 皇城島에서 서남쪽으로 2백리—鼉磯島, 鼉磯島에서 서남쪽으로 2백리—廟島, 廟島에서 남쪽으로 80리—登州, 登州에서 천8백리(濟南

4) 航海朝天圖, 1-5面 參照.

을 경유하지 않으면 천7백리)一帝都.

이 航海朝天圖는 洪翼漢의 배에 같이 타고 간 畫員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 선사포에서 연경까지의 노정과 행렬, 바닷길과 경유한 섬들, 바람과 파도, 경유지의 실경을 설명하고 그린 것이다.

4. 380년 전 登州 文錄과 畫錄

登州 文錄으로는 洪翼漢의 『花浦先生朝天航海錄』(1624년, 仁祖2, 天啓4, 甲子(全))과 작자미상의 『甲子水路朝天錄』(고려대 소장본 원명은 『도턴록』, 1624년, 仁祖2, 天啓4, 甲子(全))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각기 다른 배를 탄 일행의 이록으로서 하나는 한문본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본이란 점이 흥미롭고, 그뿐 아니라 그들 일행의 등주 체류 기간이 유난히 길었다는 점이 거론 대상으로 선택된 까닭이다. 이들 洪翼漢 일행의 수로노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624년 8월 4일 吉日을 택하여 일행 40여명이 6船에 나누어 타고 宣沙浦를 出發한다. 이들은—5일 椒島 到着.—10일 蛇浦 到着.—11일 黃鵠島 到着.—12일 石城島 到着.—13일 長山島 到着.—15일 廣鹿島 도착하여 해안에 상륙함(거리에 餅肆와 酒店이 즐비하고 登州와 내주에서 운반해온 毛督府의 軍糧 20여 가리가 쌓여 있었음. 總兵 張繼善이 섬 안의 城堡를 主管하고, 參將 馬景栢과 守備 朱國昌이 沿海를 巡視하고 있었음).—20일 平島 到着.—22일 皇城島 到着.—23일 登州의 水門 밖에 정박함.—9월12일 登州를 출발하여 黃縣에서 留宿함.—10월 12일 北京 朝陽門을 통해서 會同館에 到着하였다.

이처럼 이들 일행은 宣沙浦에서 登州까지 20일이 걸렸다. 登州에서 北

京까지는 30일이 걸렸으므로, 朝鮮의 宣沙浦에서 中國 北京까지는 50일이 걸린 셈이다. 이것이 당시 이 여행로의 보편적인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만 등주에서의 체류 일정을 조정하기에 따라서 일정에 다소의 가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홍익한 일행은 380년 전 登州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들 일행은 지루한 航海 끝에 山東半島에 있는 登州에 정박하여 중국의 물에 첫발을 디딘다. 처음으로 대륙의 인민을 만나고 진주성을 구경한다. 다음은 그들 일행이 등주 체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추려본 것이다.

8월 23일. 登州의 水門 밖에 정박한다. 登州는 옛날 嶠夷國이다. 地域이 極東에 위치하고 石壁이 바다에 임했으며, 豪華住宅이 市街地에 櫛比하니 실로 雄州巨鎮이다. 黃昏에 市中의 民家に 宿所를 정한다.

8월 24일. 舍館이 정해지지 않아서 市中의 民家に 留宿한다. 예전부터 朝鮮使臣이 登州에 當到하면 이를 知府에 알리고, 지부는 票文을 내려 公館에 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軍門 武之望이 새로 到任하기에 衙門의 官員들이 모두 城外로 그를 迎接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오후에 이슬비가 내리는데 軍門이 城北에서 들어왔다. 金轎와 玉鞍이 거리에 빛나고 창을 든 자가 그 앞뒤를 호위하고 紅巾과 紅杖을 든 자들이 쌍쌍이 잇따랐다. 북치고 나팔 불며 辟除하는 자들이 길에 가득하였다. 紅輿를 탄 15인은 모두 家妓들이었으며, 女奴들도 兜子를 탔다. 公子라고 부르는 青春少年 6-7인은 駿馬를 타고 화려한 의복을 입었다. 모든 器物이 朝鮮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일개 軍門이 領率하는 바가 이처럼 성대하니, 이것이 비록 浮華의 그릇된 습속이지만 大國의 威儀임을 볼 수 있었다고 썼다.

8월 25일. 黃孝誠 등이 知府衙門에서 票文을 받고 快手 1인을 대동하고 와 普靜寺에 임시로 사처를 정해준다. 서장관 홍익한은 上使와 더불어 東西의 禪房에 머물렀다. 그는 이 날 中國人의 信義 있고 극히 仁厚함을 알 수 있었다고 쓰고 있다.

8월 26일. 정오에 船所에 가서 格軍을 호궤(犒饋)하고 돌아온다. 저녁에 哨官 王三重과 王國祚 등이 酒饌을 갖추어 찾아와 供饋한다.

8월 27일. 軍門이 文廟에 謁見하므로 현관례(見官禮)를 행하지 못한다. 상사

부사와 普靜寺로 구경을 간다. 스님 奇玄과 朋友 등 6-7인이 寶扇과 雪花箋을 가지고 나와서 시를 간청하므로 각각 한 구절씩 써준다. 裨將 李仁男 등이 찾아와 상사의 生辰祝賀酒宴을 베풀어준다.

8월 28일. 軍門이 이날도 神廟와 寺刹에 향을 올리기 때문에 또 현관례를 행하지 못한다. 근래 중국 풍속에 大小官員이 새로 到任하면 먼저 사찰과 신묘에 두루 謁見하는 것이 규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절을 끝내기 전에는 賓客을 接見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흥익한은 中國人들이 이처럼 邪鬼를 섬기는 풍습이 있으므로 참으로 안타깝다고 쓰고 있다. 普靜寺 法堂 좌우에 金字 靑板을 달았는데 좌편에는 年月日과 登州知府 魯廷彥, 同知 翟棟, 通判 喬鳳翔, 推官 王名晉, 知縣 汪裕는 重修라고 써 있으며, 우편에는 欽差鎮守 山東等地 都督府 都督 沈有容은 鼎建이라고 쓰여 있다. 이를 본 흥익한은 士大夫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어리석은 백성임에라? 聖敎가 湮滅되었음을 이로서 짐작할 수 있다고 개탄한다.

8월 29일. 軍門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 衙門에 가서 현관례를 행하였다. 北京에 가는 까닭을 물어서 謝恩, 進賀, 奏請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자, 軍門이 말하기를 皇子是 여름에 작고하였다고 알려준다. 또 貴國의 廢君(光海君)이 잘 있느냐고 물어 잘 있다고 대답한다. 軍門에서 말하기를 오랑캐를 쳐서 멀하고 요동의 길이 통한 뒤에야야 封君典禮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일행은 表老翁에게 속히 封典을 완결시켜주는 일을 도와 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文廟에 들러서 素王(孔子)을 알현한다. 塑像은 海口(큰 입), 河目(큰 눈), 흰 이를 약간 드러냈으며, 四聖과 十哲의 상이 좌우에 있었다. 漢唐 이하 여러 儒學者들은 모두 東西廡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丘壇山⁵⁾에 이르러 그쳤다.

9월 1일. 周鴻謨와 周宗望이 酒饌을 보내와서 銀子와 人蔘으로 回謝한다. 정오에 鎮海樓에 올랐는데 中堂에는 關王의 塑像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다.

9월 2일. 周中軍에게 茶와 人蔘과 虎皮를 贈呈하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 軍門에서 演武場에 酒宴을 베풀었다. 朝鮮의 訓練院과 규모가 같은데 편액에는 神武라고 쓰여 있었다.

9월 3일. 軍門에서 일행에게 銀 1兩씩과 票文을 내려준다.

5) 명나라 孝宗 때의 유학자 丘濬.

9월 4일. 監軍 梁之垣의 집이 登州城 안에 있었다. 그가 연전에 朝鮮에 왔을 때 上使와 여러 번 만났고 漢江에서 詩酒로 즐겁게 논 일이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禮物와 饌品을 보내왔는데 술이 1백병이나 되었다. 그리고 上使를 초청한다. 上使는 예단을 보내어 回謝한다. 오후에는 三使가 蓬萊閣에 오른다. 滄茫한 雲海 밖에 있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蘇軾의 “아득한 나의 회포여 미인을 하늘저 끝에 바라본다(渺渺兮余懷望美人兮天一方)” 라는 구절을 떠올린다. 난간에 의지하여 四面을 바라보니 山川은 秀麗하고 만 길이나 되는 붉은 석벽이 바닷가에 솟았으니 과연 신선이 살만한 곳이었다. 墨客과 仙翁이 남긴 붉은 바위에 새긴 글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남아 있지만, 陳希夷(宋나라 搏)가 쓴 壽福 大字와 蘇軾이 쓴 海市詩 1수는 더욱 奇絶하였다. 이는 遊覽客들의 眼目을 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蓬萊閣 西側에 小盤만한 石鏡이 있는데 무슨 물건이건 와서 비치면 그대로 나타나며 하늘이 흐릴 때는 더욱 밝아진다고 한다. 그 북쪽에는 珠璣巖이 있다. 蓬萊閣은 城의 東側 붉은 石壁 위에 있고, 그 아래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안으로는 여러 냇물이 모여들고 밖으로는 멀리 바다와 통했다. 城 한 편을 차지하고 戰艦이 드나들어 黃龍青雀⁶⁾이 앞뒤를 연달았고 천만 개의 돛대가 그 가운데 운집한다.

9월 5일. 周宗望이 찾아와서 問候한다.

9월 6일. 登州城 안에 유명한 星學家 劉亨洪이 살고 있었다. 富貴貧賤과 死生 壽夭를 정확하게 推算하므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副使가 심히 迷惑된다. 흥익한이 부사의 말에 따라 시험 삼아 물어보았는데 들은 바와 같이 정확하다.

9월 7일. 軍門이 새로 到任해서 옛 規例를 잘 몰라서 연행사 일행이 지체하고 있었다.

9월 8일. 軍門의 揭帖과 勘合이 완성되지 않아서 출발하지 못하고 있었다. 軍門의 두 아들이 登科하여 벼슬에 제수되었으므로 賀客이 門前成市를 이루었다. 느지막하여 周宗望이 明日은 重陽節이므로 蓬萊閣에서 宴會를 베푸니 참석하여 달라는 招請狀을 보내온다.

9월 9일. 登州에 도착한 지 10여 일이 되었는데도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譯官들이 密貿易을 하기 위해 고의로 지체하는 것 같아서 上通使 2人を 잡아

6) 黃龍은 隋나라 때 兵艦의 이름이며, 青雀은 물새의 이름인데, 그 모양을 뱃머리에 그리므로 배를 말하는 것임.

들어 棍杖으로 審問하고 떠날 날은 督促한다. 周宗望이 金扇 한 개씩을 보내준다. 부체에다가 그가 自筆로 쓴 詩는 韻格이 높았다. 蓬萊閣에는 가지 않는다. 대신 三使가 鎮海樓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다.

9월 10일. 아침에 軍門에서 勸合票文을 가지고 온다. 表譯官이 亡自尊大하여 일을 그르쳤다. 見官禮를 할 때 同知와 翟棟한테 봉변을 당한다. 頓首拜란 平交間에 쓰는 말인데 外國의 陪臣이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시비가 벌어진다. 事變 이후 山東의 驛路가 疲廢하여 中國의 大官行次 때도 馬匹을 準數대로 調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너희 朝鮮使 일행이 사용할 말과 노새가 자그마치 1백여 필이나 되므로 三使의 轎夫와 正官의 騎馬와 方物 貢進하는데 쓰는 馬匹 밖에는 조발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逆賊 徐勝의 餘黨이 노략질이 심하기 때문에 軍門에 간청하여 武士 수십 명이 巡邏軍으로 차출되어 武器를 가지고 일행이 호위를 받게 된다.

9월 11일. 伴送管 王 運隆이 행장을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핑계하고 1-2일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

9월 12일. 오후에 登州를 出發하여 黃縣에서 留宿한다.

이것이 흥익한 일행이 380년에 전에 등주에 10일 간 체류했을 때의 행적이다. 따라서 이번 학술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곳을 확인하여 보는 일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上使 李德洞과 書狀官 洪翼漢이 登州에 도착하여 맨 처음으로 안내 받았던 臨時宿所 普靜寺의 東西 禪房.

(2) 普靜寺 法堂 左右에 걸렸던 것으로, 左便에 年月日과 登州知府 魯廷彦, 同知 翟棟, 通判 喬鳳翔, 推官 王名晉, 知縣 汪裕는 重修라고 쓰고, 右便에 欽差鎮守 山東等地 都督府 都督 沈有容은 鼎建이라고 쓰여 있었던 金字靑板.

(3) 鎮海樓에 올랐을 때, 中堂에 關王의 塑像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竣工이 되지 않았었다고 하였는데, 鎮海樓 中堂에 있을 그 關王의 塑像.

(4) 文廟에 들어서 素王(孔子)을 알현하였는데, 그 塑像은 海口(큰 입), 河目(큰 눈), 흰 이를 약간 드러냈으며, 四聖과 十哲의 像이 左右에 있었

다. 漢唐 이하 여러 儒學者들은 모두 東西廡에 안치 되어 있었는데 丘瓊山에 이르러 그쳤다고 기술하였던 그 文廟.

(5) 三使가 올라갔던 蓬萊閣과 蓬萊閣에 올라가서 보았던 滄茫한 雲海 밖에 있는 朝鮮. 그리고 朝鮮을 바라보면서, 蘇軾의 “아득한 나의 회포여 미인을 하늘 저 끝에 바라본다(渺渺兮余懷望美人兮天一方)” 라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한 감회. 蓬萊閣 欄干에 의지하여 四面을 바라보니 山川은 秀麗하고 만 길이나 되는 붉은 석벽이 바닷가에 솟았으니 과연 신선이 살만한 곳이었다고 한 소감. 墨客과 仙翁이 남긴 붉은 바위에 새긴 글이 이루 셀 수 없이 남아 있지만 陳希夷(宋나라 搏)가 쓴 壽福 大字와 蘇軾이 쓴 海市詩 1수는 더욱 奇絶하다고 하였던 壽福 大字와 蘇軾이 쓴 海市詩. 蓬萊閣 西側에 小盤만한 石鏡이 있는데 무슨 물건이건 와서 비치면 그대로 나타나며 하늘이 흐릴 때는 더욱 밝아진다고 하였던 小盤만한 石鏡. 그 북쪽에 있다는 珠璣巖. 蓬萊閣은 城의 東側 붉은 石壁 위에 있고, 그 아래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안으로는 여러 냇물이 모여들고 밖으로는 멀리 바다와 통했다고 하였던 珠璣巖과 蓬萊閣. 당시 城 한 편을 차지하고 戰艦이 드나들어 黃龍青雀이 앞뒤를 연달았고 천만 개의 돛대가 그 가운데 운집하였다고 하였던 옛정취의 想像.

이제 甲子水路朝天錄에 있는 登州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城上의 彩廓이 해에 비치고 閭閻이 땅에 깔렸다. 물굽이 들어간 속에는 집을 지어 꾸민 배가 서로 닿았으며, 士女들이 소매를 연하여 도로에 往來하니, 이미 그림 가운데의 것이요, 人間光景이 아니었다. 배에서 내려 城의 北寺에 들어가니, 집이 宏麗하고 奇僧이 심히 많았다. 나와서 城內로 들어가니, 좌우 저자에 寶貨가 쌓였으며, 푸른 旗를 드리운 곳에는 酒食이 일만 가지요, 또 靑樓가 大道 위에 있으며, 고운 계집이 단장을 어리게 하고 珠簾을 드리워 紗窓에 의지하여 樓下에 往來하는 遊客을 맞으며, 고을 官員이며 將帥가 蓋를 받고 수레를 타 道中威儀가 심히 성하였다.(필자의 현대어 표기)

홍익한의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여기에서 城의 北寺는 普靜寺일 듯하며,

道中威儀가 심히 성하였다고 한 것은 軍門 武之望의 도임 행렬인 것 같다. 이들 일행은 배에서 내려 城의 北寺로 들어갔다. 그리고 登州城 안의 저자 거리에 쌓인 많은 寶貨와 酒食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으며, 또 大道에 있는 靑樓에서 妓女들이 遊客을 맞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서장관 홍익한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예각화된 시각으로 여행록을 썼는데, 『갑자여행록』의 작자는 방관자적 산만한 시각으로 여행록을 썼다.

다음은 登州의 孔子祠堂에 관한 기록인데, 개원사라는 절 옆에 공자의 사당이 있었다. 先聖과 諸弟子의 塑像을 앉혔는데, 근처 儒生이 朔望으로 모여 예배하였다. 聖廟가 佛寺로 더불어 한곳에 벌었으므로, 그 先聖을 옥함이다. 또한 가히 崇佛을 성히 함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登州의 孔子祠堂에 관한 기록은 홍익한이 文廟의 기술에서 상세히 언급한 것의 지엽적인 언술에 불과하다.

登州 畫錄은 다음 4종의 水路燕行圖에 實景으로 나타나 있다.

(1) 燕行圖幅(航海朝天圖의 誤記, 國圖本)

筆者의 判斷으로는 1624년(仁祖 2, 天啓 4, 甲子)에 홍익한과 동승한 畫員이 그린 母本으로 본다. 도서인과 海波의 빛살무늬 기법이 필자가 판단하는 논거이다.

(2) 航海朝天圖(國博 A本)

筆者의 判斷으로는 1624년 이후의 模寫本으로 본다.

(3) 無題簽(國博 B本)

筆者의 判斷으로는 1624년 이후의 模寫本으로 본다.

(4) 無題簽(軍博本)

筆者의 判斷으로는 1624년 이후의 模寫本의 再模寫本으로 본다.

이 4본에 나타난 登州 畫錄은 다음과 같다.

航海朝天圖는 正使 李德洞, 副使 吳翹, 書狀官 洪翼漢으로 구성된 일행의 畫錄이다. 오숙은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로 三使 중 가장 젊었으며, 蔡

裕後 대신 書狀官으로 발탁되어 허겁지겁 배에 오른 洪翼漢은 蔡裕後의 질병으로 도중에 교체된 멤버다. 위 조천도는 동행한 화원의 작이다. 지금으로부터 380년 전인 1624년(仁祖2, 天啓4, 甲子)의 登州(그림 9-10面)의 실경 모습이어서 자못 흥미롭다. 채색 그림의 상단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림 9面에 自礮磯島 西南距 廟島 二百里(타기도에서 서남쪽으로 200리 떨어진 곳에 묘도가 있다). 自廟島 南距 登州 八十里(묘도에서 남쪽으로 팔십리 떨어진 곳에 등주가 있다)라고 쓰고, 파도 위로 보이는 타기도—眞珠門—묘도를 차례로 그리고 섬 이름을 써 넣었다. 타기도에서 묘도로 가는 항로에 그린 여러 작은 섬들을 흥익한은 이렇게 묘사하였다. 섬이 칼처럼 뾰족하기도 하고 쇠기둥처럼 깎아 세운 듯도 하고 병풍처럼 둘러서 있기도 하고 문처럼 마주 서있기도 하였다.⁷⁾ 이런 섬을 그린 것이다.

그림 10面에는 自登州 距 帝都 一千八百里 不由濟南則 一千七百里(등주에서 중국 연경까지는 1800리며 제남을 거치지 않으면 1700리다)라고 그림 상단에 썼다. 그리고 단청이 찬란한 蓬萊閣과 잘 보존된 登州外城을 그리고 등주외성이라고 쓴 옆에 齊라고 썼다. 이들 일행은 8월 23일 저물녘에 등주의 水門 밖에 정박하였다. 등주는 옛날 嶼夷國이다. 석벽이 바다에 임했으며 호화 주택이 시가지에 즐비하다고 하였는데 성 안팎의 집들을 호화롭게 그려놓고 있다. 이곳에서 부사의 團練使 康貴龍이 범죄하여 곤장 30대를 맞았다.⁸⁾ 이 봉래각을 9월 4일 오후에 삼사가 함께 올라 창망한 운해 밖에 있는 조선을 바라보았다.

이처럼 登州는 水路燕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다. 登州는 조선 연행사들이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의 긴 항해 끝에 대륙에 상륙하는 희망봉이었다. 조선 연행사들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대륙을 체험하고 느꼈으며, 중국인들과의 근접 교류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조선 연행사는 登州에서부터 외교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시작되며, 중국은 登州에서부터 조선 연행사를 외교사절로 맞는 영접을 하기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다. 燕京

7)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 8月 22日.

8)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 8月 23日.

과 漢城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사행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인정의 교류가 시작되는 곳이 登州였다.

5. 21세기 登州의 역할

현재 전승되고 있는 水路燕行錄과 水路燕行圖를 살펴보면 한중 교류에서 등주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창조적으로 설정하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는 韓中 交流에서 登州의 役割을 새롭게 발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시대의 교통 수단은 당시와 사뭇 다르다. 海路와 陸路와 空路가 자유롭게 열려 있고, 통행의 위험 정도 또한 당시와는 사뭇 다르게 개선되어 있다. 한중 교류의 방법이나 목적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교류의 빠르기에서 空路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교류의 물량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시대에도 海路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한중 교류에서 登州의 역할은 전통의 계승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1세기에 登州가 韓國人의 새로운 希望峯이 되고, 登州가 中國人의 새로운 발전적 出入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課題가 이 시대를 사는 韓中人의 話頭가 되어서 새로운 東亞細亞 秩序를 創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周邊 與件으로 인해서 韓中 交流가 圓滑하지 못하였던 時期에 登州는 그 疏通의 代案으로 登場하였던 關門이었다. 21世紀에도 登州가 韓中 交流와 東亞細亞의 交流에서 그런 成就의 凱旋門 役割을 擔當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課題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重要한 話頭로 자리잡는다면 많은 可能性을 새롭게 創出하여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年譜

본 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鶴洞 33번지(현재 論現洞 95-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狎鷗亭洞 369-1 현대아파트 20동 1203호

성 명: 林基中(雅號는 一庸, 또는 東峰. 一庸은 雨田 辛鎬烈 선생과 石田 李丙
疇 선생이 작호, 東峰은 생가의 앞산으로 자호)

생년월일: 1938년 4월 9일(음력 1938년 戊寅 3월 9일)

이날 寅時에 원적지인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송룡리 356번지에서
아버님 聖一公(諱 魯洙)과 어머니님 高靈 申氏 사이에서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남.

본 관: 平澤.

E-mail: limkz@dongguk..edu / limkz@hanmail.net

H-page: <http://www.limkeyzung.com>

전 화: 02-544-2260(한국문학연구소), 02-543-5415(자택)

전 송: 02-544-2260(한국문학연구소), 02-543-5485(자택)

1959. 2. 26. 고창중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

1963. 2. 23. 동국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963. 3. 1~1978. 2. 28. 정신여고 국어과 강사, 교사, 연구부장

1964. 3. 1~1986. 8. 31. 고려대학, 연세대학, 동국대학, 한양대학, 명지대

- 학, 한신대학, 경기대학, 서울여대, 한성대학 등 강사
1965. 2. 27.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석사)
1965. 3. 1~2003.7.31. 동악어문학회 창립회원, 연구이사(역임), 총무이사(역임), 대표이사(역임)
1967. 3. 1~현재. 국어국문학회 회원, 출판이사(역임), 연구이사(역임), 총무이사(역임), 대표이사(역임), 평의원(현재)
1969. 1. 12 밀양朴炳崙님과 반남朴貞順님의 2녀 令淑과 서울 중구 명동 장미그릴에서 약혼
1969. 2. 8. 밀양朴炳崙님과 반남朴貞順님의 2녀 令淑과 서울 종로구 종로 예식장에서 동국대학교 총장 김동익 박사의 주례로 결혼
1970. 2. 28.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교육전공 석사과정(석사)
1970. 3. 1~1983. 2. 28. 한국 국어교육학회 출판이사, 연구이사, 총무이사
1970. 1. 9. 오후 3시 7분 서울 위생병원에서 서설이 내리는 날 장남 준철 출생
1972. 6. 18. 오후 2시 서울 을지병원에서 유난히 화창한 날 장녀 민아 출생
1972. 3. 1~현재. 한국 민속학회, 한국 비교문학회 창립회원
1973. 3. 1~현재. 한국 고전문학회 회원, 출판이사(역임)
1976. 8. 20~1978. 10. 9. 한글학회 회관 건립위원회 위원
1977. 11. 1~1979. 2. 28. 문교부 제1종도서 편찬심의위원
1978. 2. 27.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박사)
1978. 3. 1~1980. 2. 28.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978. 5. 1~1982. 4. 30. 鷲山文學會 理事
1980. 3. 1~1987. 2. 2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대학원 교학부장, 기획관리실장, 교무처장, 기획관리실장
1981. 2. 25.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文學博士學位 받음
1983. 8. 1~1989. 7. 31. 文公部 동산문화재 감정위원
1983. 9. 1~1987. 2. 28. 경기대학교 출판위원회 위원장
1983. 11. 17~1985. 11. 17. 경기대학교 건설위원회 위원장
1983. 11. 17~1987. 2. 28. 경기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부위원장
1983. 12. 30~1985. 2. 28. 경기대학교 전산소 운영위원회 위원장

1984. 1. 5 ~ 1987. 2. 28. 경기대학교 재무위원회 위원장
1984. 1. 1 ~ 1987. 2. 28. 경기대학교 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1984. 3. 16 ~ 1986.3. 16. 경기대학교 홍보위원회 위원장
1984. 12. 7 ~ 1986. 12. 6.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개설 준비위원회 위원장
1985. 9. 1 ~ 1986. 8. 3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강사
1985. 12. 1 ~ 1999. 현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1985. 6. 1 ~ 1987. 5. 31. 동국문학인회 이사
1985. 9. 1 ~ 1986. 9. 1. 경기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위원
1986. 3. 1 ~ 1996. 2. 28. 연세대학 대학원, 경희대학 대학원, 단국대학 대학원, 명지대학 대학원, 경기대학 대학원, 동덕여자대학 대학원 등 강사
1987. 9. 1 ~ 1989. 9. 1. 한국고전문학회 이사
1987. 3. 1 ~ 2003. 7. 31.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987. 8. 28 ~ 1994. 2. 28. 동국대학교 개교10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위원
1988. 6. 17 ~ 1992. 6. 16.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문회 이사와 총무이사
1988. 4. 4 ~ 1990. 4. 3. 동국대학교 교무연구위원회 위원
1989. 11. 1 ~ 현재. 학교법인 南星學園 理事
1989. 4. 5 ~ 현재. 한국 시조학회 회원, 연구이사(역임)
1990. 9. 10 ~ 1992. 8. 30. 중앙교육연구원 출제위원
1991. 11. 20 ~ 현재 한국돈황학회 창립회원, 연구이사
1991. 8. 15 ~ 1999. 8. 1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전문학전집 편찬위원
1991. 5. 1 ~ 1993. 5. 1. 동국대학교 상조회 문과대학 회장
1991. 8. 12 ~ 1995. 12. 7. 연구직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1991. 4. 1 ~ 1992. 8. 31.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대의위원회 의장
1992. 3. 1 ~ 2003. 8. 31. 동국대학교 출판위원회 위원
1992. 3. 1 ~ 1994. 2. 28. 동국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1993. 3. 1 ~ 1999. 2. 28. 梁柱東全集 刊行委員會 委員長
1993. 9. 1 ~ 1994. 8. 30. 中國 北京大學校 比較文學研究所 專家教授
1993. 3. 1 ~ 1994. 2. 28. 동국대학교 방송운영위원회 위원

1994. 5. 20 ~ 1996. 12. 31. 동국대학교 국문과 총동창회 부회장
1994. 2. 5 ~ 현재. 中國 國家 1級 比較文學會 會員
1994. 12. 7 ~ 1996. 12. 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1995. 8. 1 ~ 현재. 재단법인 한글재단 감사
1995. 12. 1 ~ 1997. 2. 28. 동국대학교 교원 해외 연수자 선발위원회 위원장
1995. 12. 15 ~ 1996. 11. 30. 동국대학교 중앙교과위원회 부위원장
1995. 3.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연구교류처장, 기획조정실장
1995. 3. 1 ~ 1999. 2. 28. 남성고등학교 동창회 자문위원
1995. 4.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입시관리위원회 위원
1995. 3. 1 ~ 현재. 한글학회 회원
1995. 9. 1 ~ 1996. 2. 28.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
1995. 5. 2 ~ 1999. 2. 28. 동국대학교 교무연구위원회 위원
1995. 12. 1 ~ 1997. 2. 28. 동국대학교 교원 해외 연수자 선발위원회 위원장
1995. 12.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종합평가위원회 위원
1995. 12. 1 ~ 2002. 2. 28. 동국대학교 체육지도위원회 위원
1995. 12. 1 ~ 1997. 2. 28. 동국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1996. 12. 1 ~ 1998. 2. 28. 동국대학교 기획위원회 위원장
1996. 9. 2 ~ 1997. 9. 1. 동국대학교 인성 및 이념교육위원회 위원
1996. 11. 1 ~ 1998. 2. 28. 동국대학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부위원장
1996. 12.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산업기술환경대학원 위원회 위원
1996. 11. 1 ~ 1998. 2. 28. 동국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
1996. 1. 1 ~ 2002. 12. 30. 계간 『한글사랑』 편집위원
1996. 3. 1 ~ 현재. 한국 시가학회 회원 겸 평의원
1996. 10. 1 ~ 1998. 2. 28. 동대신문사 자문위원회 위원
1996. 3. 1 ~ 2002. 2. 28.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운영위원회 위원
1996. 12.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예결산 자문위원회 위원
1996. 11. 12 ~ 1999. 2. 28. 동국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
1996. 12. 10 ~ 1999. 2. 28.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위원회 위원
1997. 6. 1 ~ 1999. 5. 30. 국어국문학회 회장(대표이사)
1997. 3.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
1997. 3. 10 ~ 1999. 2. 29. 동국대학교 현장연구위원회 위원장

1997. 4. 17 ~ 1999. 2. 28. 동국대학교 교무연구위원회 위원
1997. 3.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발기인위원회 위원
1997. 4. 3 ~ 현재.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평의원
1997. 3. 10 ~ 1999. 3. 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운영위원
1997. 6. 24 ~ 1999. 5. 23. 동국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위원
1997. 3. 1 ~ 2002. 2. 28. 동국대학교 특별기부자예우심의위원회 위원
1997. 6. 24 ~ 1999. 5. 23. 동국대학교 교원양성기관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위원
1997. 4. 21 ~ 1999. 2. 28. 동국로얄 대학교 신입생선발위원회 위원
1997. 3. 3 ~ 1999. 2. 28.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위원회 위원
1997. 3.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위원
1997. 3.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학술연구위원회 위원
1997. 12. 11 ~ 1999. 2. 28. 동국대학교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1997. 12. 4 ~ 2003. 8. 31.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위원회 위원
1997. 9. 19 ~ 2003. 8. 31. 동국대학교 국제협력담당 교수
1997. 3. 10 ~ 1999. 3. 9. 동국대학교 정보통신분야 발전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
1997. 5. 10 ~ 1999. 2. 28. 동국대학교 동국참사람봉사단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997. 3. 1 ~ 2002. 2. 28. 동국대학교 교원초빙연구위원회 위원
1997. 3. 1 ~ 1999. 2. 28. 동국대학교 대학원위원회 위원
1998. 6. 15 ~ 1999. 6. 14.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간배치위원회 위원장
1998. 3. 23 ~ 2000. 2. 28. 동국대학교 과학관운영위원회 위원
1998. 3. 1 ~ 2000. 2. 28.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감사
1998. 9. 1 ~ 1999. 8. 3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문학과 준비위원장
1998. 10. 7 ~ 2000. 10. 9. 동국대학교 대학원중심대학 준비위원회 위원장
1998. 10. 1 ~ 2002. 2. 28. 전국 학술단체 연합회 운영위원 겸 편집위원장
1998. 9. 18 ~ 1998. 10. 8. 문화관광부 제17회 세종 문화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1998. 10. 1 ~ 2001. 9. 31.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운영위원 겸 편집위원장

- 1999. 4. 3. 오후 3시 민아 창원 황준수님과 경주 이숙자님의 차남 승훈과 서울 강남구 공항터미널 예식장에서 결혼
- 1999. 3. 1~2001. 2. 29. 동국대학교 취업지도위원회 위원
- 1999. 1. 5~현재. 전국 한자교육추진 총연합회 상임집행위원
- 1999. 6. 1~2000. 5. 30.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위원
- 1999. 3. 1~2003. 8. 31. 동국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장
- 1999. 7. 1~1999. 8. 31. 문화관광부 '99우수 학술도서 선정위원
- 1999. 3. 15~2000 6. 30.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 1999. 6. 1~현재. 미당 서정주선생시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 1999. 6. 1~2001. 5. 31.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논문집 평가위원회 위원장
- 1999. 6. 1~2009. 5. 30. 국어국문학회 평의원
- 1999. 3. 1~2000. 2. 29. 동국대학교 교원초빙연구위원회 위원
- 1999. 3. 2~2001. 2. 28. 동국대학교 출판위원회 위원
- 1999. 5. 17~2000. 5. 16. 동국대학교 학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
- 1999. 5. 10~2000. 5. 9. 동국대학교 교육과정개편 기초심의위원회 위원
- 1999. 3. 10~2000. 3. 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00. 10. 3. 오후 3시 준철 경주 김시준님과 청주 한수미님의 장녀 태연과 서울 장충동 엠버서더호텔에서 결혼
- 2001. 3. 1~2003. 2. 28. 동국대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 2001. 3. 1~2003. 2. 28. 동국대학교 교수초빙 연구위원회 위원
- 2001. 5. 1~2002. 4. 30. 한국어문학회 이사
- 2001. 3. 1~2003. 2. 28. 동국대학교 교수인사위원회 위원
- 2001. 1. 1~2003. 12. 31. 국제언어문학회 부회장
- 2002. 9. 1~2003. 2. 28.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 2002. 9. 1~2003. 2. 28.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수초빙위원회 위원장

▣ 가족 관계

아내 박영숙(朴令淑) 1944년 3월 29일생(음 3월 6일생),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학교법인 문영학원 교외이사(현대문학 전공)

- 아들 준철(濬哲) 1970년 1월 9일생(음 12월 2일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전공,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한문학 전공)
- 자부 김태연(金兌妍) 1973년 8월 12일생(음 7월 14일생),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중국현대문학 전공, 서울대학교 강사 역임, 북경대학교 중문과 박사과정 중(중국현대문학 전공)
- 딸 민아(旻莪) 1972년 6월 18일생(음 5월 8일생),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이대부속고 교사, 영국유학 중(현대문학 전공)
- 사위 황승훈(黃承勳) 1969년 2월 26일생, 연세대학교 정보통신 전공, 공학박사, 엘지정보통신연구소 선임연구원, 영국 사우샘턴대학 정보통신연구소 연구원(정보통신시스템 전공)

▣ 저술과 논문

☞ 단행본 저술

01. 조선조의 가사, 서울 성문각, 1979, 332쪽, 국판
02. 신라가요의 주력관념 연구, 서울 태학사, 1981, 150쪽, 사륙배판
03. 한국문학의 사상적 연구(상·하), 서울 태학사, 1981, 1,045쪽, 국판, 공저
04. 신라가요와 기술물의 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1981, 420쪽, 크라운판
05. 삼국유사의 문예적 가치 해명, 서울 새문사, 1982, 320쪽, 국판, 공저
06.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서울 새문사, 1982, 363쪽, 국판, 공저
07. 교합가집(일·이), 서울 태학사, 1982, 990쪽, 사륙배판, 공편
08. 교합악부(상·하), 서울 태학사, 1982, 920쪽, 사륙배판, 공편
09. 교합아악부가집, 서울 태학사, 1982, 730쪽, 사륙배판, 공편
10. 한국학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2, 661쪽, 크라운판, 공저
11. 고전시가선, 서울 교학연구사, 1984, 627쪽, 크라운판, 공편
12. 향가여요연구, 서울 이우출판사, 1985, 650쪽, 크라운판, 공저
13. 한국문학신강, 서울 새문사, 1985, 441쪽, 국판, 공저
14. 교합송남잡지(1-5), 서울 동서문화원, 1987, 31,120쪽, 사륙배판
15. 역대가사문학전집(1-10), 서울 동서문화원, 1987, 65,100쪽, 사륙배판
16. 역사가사문학전집(11-20), 서울 여강출판사, 1989, 107,061쪽, 사륙배판

17. 한국불교문학연구(상·하), 서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8, 9,805쪽, 국판, 공저
18. 시조문학작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1990, 12,705쪽, 국판, 공저
19. 한국문학작가론, 서울 현대출판사, 1991, 1,118쪽, 크라운판, 공저
20. 한국문학개론, 서울 혜진서관, 1991, 8,627쪽, 크라운판, 공저
21.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 국판, 공저
22. 불교문학연구입문,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 353쪽, 국판, 공저
23. 양주동연구, 서울 민음사, 1991, 402쪽, 국판, 공저
24.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서울 동국대 출판부, 1992.4.10, 662쪽, 신국판
25. 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들지 마라, 서울 경운출판사, 1992.5.15, 286쪽, 국판, 공저
26. 역대가사문학전집(21-30), 서울 여강출판사, 1992.10, 7,100쪽, 사륙배판
27. 우리의 옛노래, 서울 현암사, 1993.3.20, 420쪽, 신국판: 1994년도 교보문고독자가 선정한 권장도서로 선정됨
28. 우리 세시 풍속의 노래(역서), 서울 집문당, 1993.9.1, 신국판: 1994년도 외무부 국제학술교류재단 추천도서로 선정됨
29. 불교가사(1-5), 서울 동국대 역경원, 1993.7.30, 문고판
30.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서울 경운출판사, 1993.5.30, 신국판, 공저
31. 시로 읽는 노래문학, 서울 화동출판사, 1994.8.20, 472쪽, 신국판
32.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 한국방송공사(KBS), 1995.1.15, 96쪽, 국배판
33. 광개토왕비원석초기탁본집성, 서울 동국대 출판부, 1995.11.30, 400쪽, 사륙배판: 1996년도 제37회 한국일보사 출판문화상 수상도서로 선정됨
34. 한국고전시가어휘색인사전, 보고서, 1996.1.30, 1,054쪽, 신국판, 공편
35. 조선시대한시작가론(개정판), 이회문화사, 1996.3.25, 775쪽, 신국판, 공저: 1996년도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됨
36. 경기체가연구, 태학사, 1997.3.31, 358쪽, 국판, 공저
37. 가사문학연구사, 이회문화사, 1998.2.20, 582쪽, 국판: 1998년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38. 향가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5.30, 522쪽, 신국판, 공저

39. 가사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5.30, 536쪽, 신국판, 공저
40. *КОРЕЯ*, Moscow Russia: Moscow State University, 1998.6.17, 소국판, 공저
41. 한국문학의 이삭,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9.15, 350쪽, 신국판
42. 천재적인 바보,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10.5, 316쪽, 신국판
43. 새로 읽는 향가문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10.20, 518쪽, 신국판
44. 역대가사문학전집(31-50, 총목록 1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8.11.30, 13,650쪽, 사륙배판
45. 연행일록(역주), 경기도 박물관, 1998.12.20, 510쪽, 사륙배판
46. 불교가사 원전연구, 동국대 출판부, 2000.10.10, 1,155쪽, 사륙배판
47. 불교가사연구, 동국대 출판부, 2001.5.30, 486쪽, 사륙배판
48. 연행록전집 1-100권, 동국대 출판부, 2001.10.25, 58,000여쪽 분량, 국판
49. 연행록전집일본소장편 1-3권, 한국문학연구소, 2001.11.25, 2,500여쪽 분량, 사륙배판
50. 연행가사연구, 아세아문화사, 2001.11.30, 462쪽, 신국판: 2002년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51. 불교가사독해사전, 이회문화사, 2002.3.1, 435쪽, 국판: 2002년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52. 옛노래 시로 읽기, 이회문화사, 2002.3.5, 480쪽, 신국판
53.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6.30, 436쪽, 신국판: 2002년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54. 한국가사학사, 이회문화사, 2003.8.30, 1,114쪽, 신국판
55. 한국고전문학과 세계인식, 2003.11.17, 696쪽, 국배판: 2003년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됨

☞ 단독집필 논문

01. 신라가요에 나타난 주력관, 동악어문논집 5집, 1967.3
02. 고려가요 동동고, 양주동박사고회논문집, 1972.8
03. 장생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68-69호,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 서울 숙명여대, 1975.11

04. 속고려가요 동동고, 한국학연구 1집, 1976.10
05. 노산의 한국문학연구, 노산문학연구, 서울 당현사, 1976.10
06. 고려조의 시조 3수에 대하여, 명지어문학 9집, 1976.12
07. 달거리와 월령체가의 장르 계정에 대한 이의, 김성배박사회갑논집, 서울 형설출판사, 1977.8
08. 경기체가 충효가에 대하여, 우리어문학 2집, 1977.10
09. 사행가사 서행록고, 문예중앙, 1978.가을, 1978.9
10. 신라가요 연구사고, 새국어교육 29-30호, 1979.9
11. 향가의 연구와 그 인식 양상에 대하여, 관대논문집 8집, 1980.2
12. 유사소재 서사문학의 주력관념, 관동 11호, 1980.2
13. 신라가요와 그 산문기록의 배경과 주력관념에 대하여(1), 조연현박사회갑기념논집, 1980.7
14. 신라가요와 그 산문기록의 주력관념 추적에 대한 방법론고, 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 1980.9
15. 향가의 종교적 성격구명을 위한 전단작업, 경기대학 논문집 8집, 1980.12
16. 향가작자의 주사적인 기능유형, 경기어문학 1집, 1980.12
17. 신라가요의 전승형태와 내면구조, 한국문학연구 3집, 서울 동국대, 1981.2
18. 신라가요와 그 산문기록의 배경과 주력관념에 대하여(2), 백산학보 26호, 1981.3
19. 향가의 발상에 대하여, 태능어문 1집, 1981.7
20. 신라가요와 그 기술물과의 관계, 동악어문학 14집, 1981.3
21. 가사에 있어서 두시의 영향과 수용, 이병주박사주갑논총, 1981.10
22. 아악부가집에 대하여, 경기어문학 2집, 1981.12
23. 가집과 악부에 대하여, 경기대 논문집 9집, 1981.12
24. 향가의 창작발상에 대하여,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서울 새문사, 1982.2
25. 고려가요와 구전문요,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서울 새문사, 1982.3
26. 평민가객과 시조집의 편찬, 한국문학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1982.5
27. 한국 여행자문학 연구의 가능성, 전병두박사회갑기념논총, 1983.2
28. 천부인에 대하여, 강한영박사고회논총,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3.2

29. 고전시가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 경기대학 논문집 17집, 1985.9
30. 장경세와 강호연군가, 김기동박사회갑기념논총, 1986.12
31. 고려가요의 어휘와 그 활용구조, 경기어문학 7집, 1986.12
32. 무애선생의 고전시가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4호, 1987.5
33. 화청과 가사문학, 국어국문학 97호,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 송실대학교, 1987.5
34. 연행가사연구, 한국문학연구 10집, 서울 동국대, 1987.9
35. 정치업의 격몽가에 대하여, 이상보박사회갑논문집, 1987.9
36. 향가문학과 불교홍법, 한국불교문학연구, 한국문학연구소, 1988.9
37. 향가해독의 문학적 평가, 동대논문집 27집, 1989.3
38. 청구가곡과 홍사용, 국어국문학 102호, 1989.12
39. 불교사상과 한국근대문학, 한국문학연구 12집, 서울 동국대, 1989.12
40. 이광수의 악부에 대하여, 이우성선생정년기념논총, 1990.11
41. 일연화상의 생애와 문학, 동대 논문집 29집, 1990.12
42. 고시조문헌 두 가지, 시조학논총 6집, 1990.12
43. 일연화상론, 김동욱박사추념기념 한국문학작가론, 서울 현대문학사, 1991.5
44. 불교 속의 문학과 문학속의 불교,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9
45. 20세기 중국문학연구에서의 불교문학연구,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9
46. 변문과 향가의 언어구조, 불교문학연구입문,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9
47. 향가해독의 문학적 평가와 해석, 양주동연구, 서울 민음사, 1991.10
48. 돈황가사와 한국시가문학, 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 서울 경운출판사, 1991.11
49. 향가해독의 평가와 해석, 유희년박사회갑기념논문집, 서울 맥한도출판사, 1991.12
50. 불교가사에 나타난 우리글말의 쓰임새, 한글 214호, 한글학회, 1991.12.30
51. 조천록과 연행록의 복식, 한국복식 10집, 한국복식학회, 1992.4.25, 서울 신양사, 25-105쪽

52. 가사의 문헌적 연구, 국어국문학 논문집 15집,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992.5
53. 불교가사의 구조와 글말의 쓰임새, 유재영박사회갑기념논총, 서울 이회문 화사, 1992.9.20
54. 향가와 그 기술물의 변문적 구조와 기능, 강전섭교수회갑논총, 간행위원회, 1992.10
55. 민요란 무엇인가, 우리문학 17호, 1992.겨울, 1992.12.15
56. 북경대학의 한국본 고서에 대하여, 국회도서관보 224호, 서울 국회도서관, 1992.12
57. 연행록의 대청의식과 대조선의식, 연민학보 창간호, 연민학회, 1993.2.28
58. 금호 임형수론, 조선조한시작가론, 이종찬교수회갑논총, 1993
59. 향가의 주사적 시문법, 동국논총 32집(인문사회과학편), 1993.7
60. 19世紀 燕行錄中的 韓中詩人 和答詩, 比較文學, 北京大學 比較文學研究所, 1994.5(중문)
61. 북경에서 조사한 광개토왕릉비 탁본과 석문 13종에 대하여, 37회 국어국 문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집, 수원 아주대학교 본관 156실, 1994.6.12, 1-13쪽
62. 광개토왕릉비 탁본의 제문제, 고구려사연구 한중학술회의 발표요지집 광 개토왕비연구의 재조명, 수원 경기대 박물관, 1994.11.9, 55-80쪽
63. 대당서역기와 왕오천축국전의 문학특성, 불교학보 31집, 서울 동국대 불 교문화연구원, 1994, 국배판
64. 關於『大唐西域記』和『往五天竺國傳』的文學特性, 韓國學論集 第三號, 北京 大學 韓國學研究中心, 1994.12, 150-166쪽, 국배판(중문)
65. 북경에서 조사한 광개토대왕릉비 탁본과 석문 13종에 대하여, 書通, 동방 연서회, 1994.8, 국배판
66. 북경에서 조사한 한국학관련 희귀고서와 고문서, 국회도서관보 31권 4호, 국회도서관, 1994, 69-74쪽
67. 광개토왕릉비 탁본의 제문제, 한배달 27호, 사단법인 한배달, 1995.3.1
68. 새로 발견된 광개토왕비원석 초기탁본 해독의 제문제, 38차 국어국문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집, 고려대 경영관 신관 338호실, 1995.5.28, 1-12쪽
69. 北京大學所藏 好太王碑 原石拓本攷, 日本學 第14輯,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1995.11

70. 광개토왕비 해석에서 나타난 몇 가지 새로운 문제, 동악어문학회 199차 발표회 발표요지집, 서울 동국대 동국관 A-104호실, 1-5쪽
71. 戊子西行錄과 丙寅燕行歌, 한국가사문학연구, 정재호박사회갑기념논총, 서울 태학사, 1995.12
72. 새로 발견된 好太王碑原石初期拓本 해독의 제문제, 한국문학연구 18집, 서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95.12, 279-321쪽, 국배판
73. 향가의 문학적 해독, 새국어생활 6권 1호, 1996.봄, 국립국어연구원, 1996.3.30, 17-49쪽, 신국판
74. 한국의 호태왕비탁본과 비문연구, 상·중·하권 중의 상, 고구려연구회, 1996.8.9
75. 세시풍요에 나타난 19세기 서울권세시풍속, 모스크바대학 한국학국제센터 발표요지집, 1996.12.17
MAJOR ISSUES IN HISTORY OF KOREAN CULTURE, Moscow December 17-20,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Moscow, 1996-1997(러문)
76. 한·중외교문학연구, 동악어문논집 31집, 1996.12.25, 171-213쪽
77. 조천록과 연행록의 화답시, 국어국문학 119호, 국어국문학회, 1997.5.31, 207-237쪽
78. 18세기 연행록의 화답시, 5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논문집(*Proceedings of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vol.2,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Moscow, 1997, 89-100쪽
79. 향가 해독과 문학적 평가, 향가 연구, 태학사 신국판, 1998.5.30, 105-146쪽
80. 연행가사와 연행록, 가사 연구, 태학사 신국판, 1998.5.30, 447-519쪽
81. 18세기 연행록의 화답시, 대판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 1998.6.30, 89-100쪽, 신국판
82. 한국 고전문학의 불교코드, 일본 대정대학, 1998.10.15, 45-59쪽, 사륙배판
83. 인문학 위기극복을 위한 학술단체의 역할, 국어국문학 122호, 1998.12.20, 1-11쪽, 신국판
84. 새 자료 연행일록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3호, 1999.3.15, 175-194쪽, 신국판

85. 한국적 지식기반사회의 변화를 위한 학술단체의 역할,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학술단체의 역할, 한국 학술단체연합회,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1999.6.28, 17-23쪽
86. 한국 불전 정보화의 범주와 방향,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설립 기념 세미나—21세기의 불전 전산화 방향,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1999.10.6, 31-62쪽
87. 十九世紀 中韓外交和答詩의現代意義, 中國北京大學-韓國東國大學 第2次學術討論會議論文集, 北京大學中國傳統文化研究中心, 1999.10.21-23, 109-129쪽(중문)
88. 불교시가, 19차 한국문학 학술회의, 한글시대의 불교언어와 불교문학,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제3세미나실, 1999.11.19, 55-79쪽
89. 신라문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 신라시대의 문학과 언어, 문학과언어학회와 위덕대 신라학연구소 공동 주최, 위덕대 인문사회관 중강당, 1999.12.4, 1-17쪽
90. 연행록의 환희기, 한국민속학 31집, 한국민속학회, 1999.12.27, 257-328쪽
91. 한국 불전전산화의 범주와 방향, 전자불전 창간호,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1999.12.30, 39-86쪽
92. 연행록의 연희기와 관희시, 문학한글 13호, 한글학회, 1999.12.30, 27-66쪽
93. 불교시가연구, 한국문학연구 22집, 한국문학연구소, 2000.3.1, 5-36쪽
94. 무애선생의 고시가연구, 한국문학연구 22집, 한국문학연구소, 2000.3.1, 175-188쪽
95. 동아시아불교문학연구의 의미, 한국문학연구 23집, 한국문학연구소, 2000.12.30, 5-16쪽
96. 불교가사와 한국가사문학, 불교학보 37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0.12.30, 183-204쪽
97. 불교적 사유와 작시원리, 동악어문논집 37집, 동악어문학회, 2001.8.30, 99-124쪽
98. 연행록과 한국학연구, 한국문학연구 24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12.30, 11-64쪽
99. 정토사상과 한국의 시문법, 정토학연구 4집, 한국정토학회, 2001.12.30,

21-55쪽

100. 한국불자문인들의 어문관과 불교관, 한국어문학연구 3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2.9, 125-142쪽
101. 연행록의 전승 현황과 그 문학담론,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02.10, 31-52쪽
102. 가사작품 주석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문학연구 25집, 2002.12.30, 3-100쪽
103. 연행록의 물유인식과 문물인식, 한국실학과 동아시아, 경기문화재단, 2003.12.12, 53-89쪽
104. Traditional Story Telling and Poetry Grammar in Korea 7-8 Century A.D.,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Vol.4, 2004.February, 49-59쪽(영문)
105. 18세기 연행록과 무자서행록, 이화여대와 서강대학 대학원 동양사학과 특강, 2004.3.23, AM 11:00-12:00
106. 十七世紀 水路燕行錄與登州, 登州港與中韓交流 國際學術討論會, 中國 山東大學 中國 蓬萊 “平和頌” 國際青少年文化藝術盛典組委會, 2004.8.20-24(중문)

☞ **잡문 발표(1996년 이후)**

01. 광개토왕비문 북경대학소장탁본에 대하여 상, 日本 統一日報, 1996.4.16
02. 광개토왕비문 북경대학소장탁본에 대하여 하, 日本 統一日報, 1996.4.17
03. 북경근교의 어느 절에서, 주간불교, 1997.2.4
04. 나리다근교의 어느 절에서, 주간불교, 1997.3.11
05. 대만 불광사에서, 주간불교, 1997.4.8
06. 옛노래의 불교문화코드(가사), 불교신문, 1997.11.25
07. 옛이야기의 불교문화코드(민담), 불교신문, 1997.12.9
08. 말과 글과 사람됨(한글사랑), 한글사랑, 1998.봄, 1998.4.30
09. 혜초스님과 왕오천축국전, 월간 구룡, 구룡사, 1999.2
10. 중국의 3M사상과 서구의 반3M사상, 동대신문, 1999.3.22
11. 한국공중전화의 역사 감수사, 한국공중전화사, 1999.7.14
12. 무애선생의 학문과 창작과 생애, 동대신문, 1999.11.8

13.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Sky-News, 2001.4
14. 인문학육성방안 제안, 학술진흥재단 회보, 2001.7, 웹진
15. 한글대장경과 한국의 표현문화, 정각도량 66호, 동국대 정각원, 2001.10
16. 양주동선생과 한국문학연구, 진리와 자유, 2002.가을, 연세대학교 재단
17. 한국의 가사문학(1-5회), 동대 신문, 2002.8.2-11.18. 동국대 신문사
18. 2003. 2월 이달의 문화인물 양주동 1책, 문화관광부, 2003.2.1

☞ **학술 특강(2002년 이후)**

01. 20세기 전반기의 언어생활과 불교, 2002.5.31, 김포 중앙승가대학 대강당
02. 연행록의 전승 현황과 그 문학담론, 2002.6.29, 부산 부산대학교, 한국문학회, 부산대학교 강당
03. 가사작품주석의 현황과 문제점, 2002.11.8, 서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04. 연행록의 물유인식과 문물인식, 2003.12.12, 경기문화재단, 한국실학과 동아시아, 경기문화재단 강당
05. 18세기 연행록과 무자서행록, 2004.3.23, 이화여대와 서강대학 대학원 동양사학과 특강, 세미나실
06. 17세기 수로연행록과 등주, 2004.8.20, 중국 산둥성 봉래시 봉래각대주점 강당

▣ **연구비 수혜 실적**

01. 연행가사 연구, 1985년 제2학기, 학술진흥재단, 5백만원(단독)
02. 한중 외교문학 연구, 1995년 제1학기, 학술진흥재단, 6백만원(단독)
03. 연행록과 연행가사, 1996년 제2학기, 대우재단, 7백만원(단독)
04. 새로 읽는 향가문학, 1998년 제2학기, 동국대학교, 6백만원(공동)
05. 한국통신 공중전화주식회사10년사, 1999.7, 1백5십만원(단독)
06. 불교가사 원전 연구, 1999년 제1학기, 동국대학교, 6백만원(단독)
07. 불교가사 연구, 1999년 제1학기, 한국학술진흥재단, 1천8백만원(단독)
08. 조선조 특수집단의 언어와 문학, 2000년 한글재단, 7백만원(단독)

09. 가사문학 원전연구,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과제, 학술진흥재단, 3천만원(공동)
10. 가사문학주석연구,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학육성과제, 학술진흥재단, 7천만원(공동)
11. 연행록 해제,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 국학고전과제, 학술진흥재단, 3억5천만원(공동)

▣ 국외 학술회의·학술답사·학술교류 참가 및 학술 발표

- 1983.1.7 ~ 29. 영국 폴리테크닉대 초청으로 구라파 7개국 교육문화 부문의 학술답사(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네델란드 등)
- 1986.7.5 ~ 11. 대만 봉갑대학 대학원장 초청으로 대학과 대학원 학술교류 실무협의차 봉갑대학을 방문하고, 이어서 대북, 화련, 대중, 고웅시와 불광사 등지를 답사하면서 강의함. 귀로에 일본 오사카를 방문함
- 1988.1.5 ~ 18. 태국 고등여학교 초청으로 태국의 교육문화를 시찰하고 이어서 동남아 6개국의 교육 문화 부문을 시찰(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 1988.1.22 ~ 29.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하와이 등지의 교육문화 부문을 시찰
- 1990.8.3 ~ 5. 일본 오사카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 문학부회 발표자로 참가하여 「韓國口傳民謠와 敦煌曲 12月相思」를 발표함
- 1990.8.7 ~ 22. 中國 敦煌吐魯番學會 초청으로 돈황불교유적지를 답사하고 돈황학 학술토론회에 참가(홍콩, 廣州, 西安, 蘭州, 北京, 延吉, 長白山, 上海 등지를 답사)
- 1991.8.9 ~ 16. 杭州大學 古籍研究所 초청으로 敦煌語言文學國際學術會議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敦煌歌辭와 韓國詩歌의 文獻과 構造」를 발표함(上海, 蘇州, 杭州, 長沙, 岳陽, 鷄林 등지를 답사)
- 1992.8.19 ~ 30. 中國 北京大學 조선문화연구소 초청으로 제4차 세계 조선학 자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燕行錄의 對淸意識과 對朝鮮意識」을 발표함. 이어서 몽고 울란바뜨르대학을 방문하여 총장과 몽고어과 학과장을 만나 대담했으며, 민속극을 관람하고 박물관을 살펴본 후 수도 울란바뜨르 주변의 유목민촌과 여러 사찰과 유적지 등을 답사함

- 1993.7.8~8.16. 미국 미시건대학 주최 세계 한국학자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향가의 내면세계」를 발표함(미국 중동부 쪽의 오대호 주변과 서부의 옐로우스톤, 로스앤젤러스, 그랜드 케년,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우, 세크라멘토, 레이크타호, 킹시티, 솔벡과 멕시코 등지를 답사)
- 1994.4.15~23. 中國 洛陽과 西安에서 열린 국제 현장학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대당서역기와 왕오천축국전의 문학특성」을 발표함(현장의 고가와 현장의 묘, 소림사, 수양산 등 낙양 일대와 서안 일대를 답사)
- 1995.12.19~26. 호주 시드니대학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대학 방문(호주의 브리스베인, 시드니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로토루아 답사)
- 1996.7.14. 日本 삿보로학원대학 방문. 동국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의 제1차조인식을 가짐. 법과대학 박영길 학장과 동행. 삿보로시 기념탑, 시청, 삿보로시 조망대, 북해도대학 등 방문. 삿보로대 학장, 국제처장, 기획조사실장, 법대학장 등과 교류 논의
- 1996.10.15~18. 日本 대정대학 주최 한일학술회의 단장으로 참가. 니꼬에서 2박을 하면서 학술발표를 마치고, 니꼬 주변의 신사와 사찰을 답사함. 나리따에서 일박을 하고 밀교사찰을 참배. 이 절의 박물관과 도서관 시설과 관리에 깊은 인상을 받음. 도서관에 1900년대 초 한국문헌 다량 소장. 그 정리상태가 아주 경탄할 만하며,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영인본이 소장되어 있었음(대만 해적판). 한국, 중국, 서장, 몽고, 티벳, 인도, 일본 불교를 연구하는 7실의 전문 불교 연구실을 가진 점 또한 놀랄 만함. 박물관장 겸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윤식, 불교대학원장 목정배, 선학과 최창술(현각) 교수와 동행. 대정대 학장, 국제처장, 이시가미 불교대학장 등과 교류 논의
- 1996.10.30~11.3. 臺灣 文化大學과 학술교류협정 정식조인식을 가짐. 이사장, 총장, 교무처장, 인사처장, 임명덕, 양인중, 임추산 상원의원 등과 교류 논의. 불광사 국제학술회의 참석. 불광사와 징청호 등을 돌아보고 옴. 송미령의 그랜드호텔에서 일박을 함. 송총장과 그 부인, 이법산 정각원장 동행함
- 1996.12.15~22. 러시아 모스크바대학교 아세아 아프리카대학 주최 학술회의 논문발표. 모스크바대학교 구관과 신관, 붉은 광장, 크레무린궁과 레닌묘, 푸쉬킨박물관, 레닌그라드대학, 푸쉬킨 귀족학교, 푸쉬킨왕궁박물관, 에르

- 미타쥐박물관, 동방역사박물관을 관람. 미하일박, 김려춘 등 러시아 학자, 소냐, 김해순 등 독일학자, 도니노 이태리, 미국의 임해기 등을 만나 교류함. 서울대 이규광, 최병헌, 고려대 조광, 안기성, 이화대 신형식과 우리 부부가 한국에서 참가함
- 1997.7.31 ~ 8.9. 캐나다 터론토대학 방문, 캘거리 밴쿠버 킹스턴의 퀸매리대학 등을 돌아보고 귀국함
- 1998.7.26 ~ 8.3. 중국 대련, 단둥, 환인, 집안, 용정, 연변 등지의 고구려 유적 조사와 광개토대왕 비문의 의문처 한 글자 확인 조사하고 답사를 마침
- 1998.10.14 ~ 16. 일본 동경 대정대학 국제학술교류회의 한국 고전문학의 불교교도를 발표하고 川崎大師平間寺 山内 견학을 하고 護摩法要式에 참여함
- 1999.10.21 ~ 24. 중국 북경대학에서 19세기 한중 외교화답시의 현대적 의미를 발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음. 북경대의 4교수가 발표를 하였음. 만리장성의 신관광지에 가서 索道를 타고 長城을 보았음. 동국대 송석구 총장, 고려대 윤사순 교수, 동국대 이종찬 명예교수, 최순열 연구처장, 박영환, 한영수 두 교수와 일행이 되었음.
- 1999.12.15 ~ 26. 아프리카 케냐 등 2개국 사파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루블박물관 개선문과 신개선문, 파리타워, 밀레니움 구조물 등을 둘러보고 까뮤와 헤밍웨이 등이 집필 공간으로 삼았던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1,200-1,300k년 전) 앞에 있는 카페에 들러 크로아상과 커피로 겨우 아침을 시능 냄. 케냐 나이로비로 가서 적도를 통과 트리탑, 마사이마라 등지를 사파리 함
- 2000.1.19 ~ 25. 시라가와(白川豊)교수의 주선으로 일본 후쿠오가(福岡)의 九州産業大學 國際文化學부와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을 하고, 구마모도학원대학(熊本學院大學)과 구마모도대학(熊本大學)을 방문함. 구마모도학원대학에서 申東旭교수를 만나고 구마모도대학에서는 문학부의 언어학교수인 아프리카어 전공 시미스(清水紀佳) 언어학교수(언어학 사전에 아프리카언어 1500언어를 소개한 교수)를 만나 아소(阿蘇)와 벳부(別府)를 거쳐서 후쿠오가까지 동행함. 구주대학(九州大學)의 조선사 연구실과 인문학 전용도서관을 돌아보고 한국학센터를 방문함. 하마다 교수는 나를 한국학센터의 개관 후 제1호 방문객이라고 반겼음

- 2001.2.11 ~ 15. 중국 운남성 곤명 소석림과 대석림, 민속박물관, 세계화훼박람회장 일대와 계림의 이강, 관암동굴, 상비산 일대 답사함
- 2001.5.10 ~ 16. 미국 USC 대학, 킹스캐년, 세큐어팩 둘러보고 오다. 세큐어팩 산장에 3일간 유숙하면서 오전 오후 1코스의 트레일을 걸으면서 대담
- 2002.1.7 ~ 16. 그리스 아테네 아카데미아, 터키 이스탄불 대학 보고, 이집트 카이로와 룩소르 답사함.
- 2003.7.19 ~ 8.3. 영국 런던, 사우샘턴, 옥스퍼드대학, 코츠월드, 셰익스피어 생가, 아이슬 오브와이트, 알룸베이, 오스번하우스 등을 아내와 민아 내외와 진우가 함께 답사 여행을 함
- 2004.2.17 ~ 22.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호지민 박물관, 군사박물관, 호지민 생가, 캄보디아 씨엡립, 앙코르 남문, 바이윤사원, 바프온사원, 구왕궁, 피미니카스신전, 코키리테라스, 리버킹테라스, 타프놈사원, 앙코르왓사원, 여인의 성 반떼이스레이사원, 수상 베트남족 빈민촌 등을 아내와 준철이 내외와 함께 답사여행을 함. 준철이의 2004년 2월 25일 고려대 문학박사 수위기념, 우수논문 작성 축하와 태연이의 북경대 최우수 성적으로 종합 시험 통과를 축하하기 위함
- 2004.3.29 ~ 4.13. 칠레의 산티아고, 잉카호수.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의 발상지인 보카지구, 레클레타묘지, 탱고쇼, 아르헨티나 쪽의 이과수 폭포 악마의 목구멍. 파라과이의 인디오촌,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 보트 사파리, 상파울로 경유 리오데자네이로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슈가로프산 케이블카로 등정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리오항구 조망, 스톤 보석박물관, 이빠네마 해안, 코파카버나 해안, 삼바쇼, 페루의 리마, 꾸스코, 삭사이와만, 켄코, 탐보마차이, 푸카푸카라 등 잉카 유적지, 산토도밍고 성당, 우루밤바, MATCHICKU, 말도나도 아마존 정글 지역. 미국 로스앤젤러스의 GETTY CENTER, DESCANSO GARDEN 등을 아내의 회갑기념으로 둘러보고 귀국함
- 2004.8.20 ~ 25. 중국 산둥성 봉래시장과 산둥대학 중한연구중심 진상승 소장 초청으로 등주항과 중한교류 국제학술대회에 주제발표자로 참가. 20일 전야제로 봉래시 세계청소년 예술축제에 참석. 21일 오전 봉래각대주점 강당에서 주제발표(중국학자 2명/한국학자 2명: 서울대 최병헌과 동국대 임기중). 오후 분과발표. 22일 오전 분과발표 1부 주특인으로 진행 말씀.

오후 봉래각 답사. 박물관 관람. 牌坊 관람. 23일 산둥성 栖霞市 牟墨林
중국 최대의 地主莊園 답사. 연대 해변 답사. 24일 청도 답사 후 25일 연
대를 거쳐서 귀국함.

2004.9.13 ~ 28. 영국 사우샘턴대학 방문. 오스트리아 살스버그대학 방문(모자
르트 생가, 살스버그성, 로만틱가든, 물의 궁전, 볼프강호수). 독일 독수
리머리산 오름(히틀러가 있었던 곳). 영국인 진과 로이 아파트에 머물렀으
며 융숭한 접대를 받았음. 두 번의 로이집 초정과 2번의 외식 초청을 받
았음. 그들의 안내로 달밤에 new forest를 지나면서 사슴과 말을 만났으
며 로마정원과 일본 정원을 산책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음. 우리 부부
와 딸 민아네 가족과 진과 로이와 더불어 며칠 동안 어울렸음. 진과 로이
의 초청으로 poole 항구에서 스콘과 차를 마시면서 환담하였음